

흉부질환에 대한 비디오흉강경수술 101례 임상연구

서울시 시립보라매병원 흉부외과

이정상·조상록

1910년 Jacobaeus에 의해 처음으로 치료목적의 흉강경이 이용되고, 1921년부터 진단목적으로 이용범위가 넓어지다가 1989년 Viskum 등이 8000례의 흉강경수술을 보고하고 있는 바, 덜 침습적인 수술요법으로서 1992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흉강경수술이 시행된 이래 여러 흉부질환에 많은 병원이 시술하고 있으며 보라매병원에서는 1994년 1월부터 1995년 8월까지 78명에 환자에서 101례에 흉강경수술을 시행하였다.

연령은 16세에서 79세로 평균 29.9 ± 14.5 세였고, 남자 대 여자의 비율은 70:8로 남자가 많았으며 (89.7%), 질환으로는 기흉 56명(양측성 18명), 폐종양 7명(양측성 1명), 종격동 종양(6명), 다환중 4명, 농흉 2명, 미만성 폐간질질환 3명이 었다. 수술내용은 췌기폐부분절제술 76례, 흉부교감신경절제술 8례, 종격동종양제거술 4례, 폐박피술 2례, 단일폐엽절제술 1례였다. 양측성시술례는 23명에서 46례였으며, 기계적 시야불량, 늑막유착, 출혈 및 기타이유 등으로 개흉술로 전환한 경우는 10례이고(9.9%), 기흉수술 74례 중 재발율은 5례였고(6.8%), 자동봉합기 사용량은 0개에서 11개(평균 2.7 ± 2.2 개)이며, 수술후 흉관거치기간은 1일 부터 14일(평균 4.4 ± 1.9 일)이었다. 수술후 합병증은 10일 이상이 공기누출 2례(1.9%), 출혈 1례(1%)였으며 그외 합병증은 없었고 수술후 사망례는 없었다.

이상의 임상연구결과 비디오흉강경수술은 기존 개흉술에 의한 흉부질환 치료에 비해 조심스러운 적응증을 응용하면 좋은 임상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